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 “타임머신 발명 과거 미래 가고파”

세계 어린이 21세기 희망 '내가 바라는 세상'

EBS 내년 2월까지 방송

“우리 땅 대신 구름에서 살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구름이거든요”(브라질의 7세 소년 니테로이).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화성 같은 우주에서 생활하게 될 것 같아요. 타임머신을 발명해 미래와 과거도 가보고 싶어요”(안타쿠아의 12세 소녀 헤이네세). “모든 판사와 변호사가 사람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주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 일할 거예요”(시리아의 7세 소년 미셀).

EBS교육방송이 지난 8월30일 첫방송을 시작한 '내가 바라는 세상'(프랑스 제작)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지구촌 어린이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고 흥미롭다. 내년 2월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후 6시50분에 방송되며, 모두 260명 어린이들이 21세기의 꿈과 희망을 펼쳐놓는다.

'내가 바라는 세상'에는 타임머신과 불사조가 된 인간 등 그들이 바라보는 21세



기는 환상적이고 20세기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는 각간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생각들도 담겨있다.

하지만 20세기 어린이들의 꿈과 환상 속에서 비행기와 컴퓨터 그리고 비디오아트 등 새로운 예술이 나왔듯이 그들의 꿈이 실현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21세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고 이 어린이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세계 어린이들의 생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도 하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 미국 소년 더스틴, 남편이 잘 생겼으면 좋겠다는 페루 소녀 비다, 빨간 불일 때는 모두가 멈춰야 하는 교통법규를 만들고 싶다는 러시아 소년 미차 등 이들의 희망은 일상생활에서 소박하게 출발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가난과 부의 배분 문제에서부터 남녀의 평등과 결혼, 종교와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사고는 이미 폭넓게 존재한다.

“나는 어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어요”(아이티의 8살 소년 그레데릭).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싸움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인도의 10세 소녀 푸르미나). “21세기라고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지만 인구가 늘어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프랑스 12살 소년 고디에). “제가 밀레니엄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바램은 아이가 울고 아파한다면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영국의 7살 소녀 이자벨).

어린이들의 기대와 꿈은 지금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새희망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현영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생활정보

정신질환자도 장애인 혜택

생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와 자폐증환자, 만성 심장·심장 질환자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만명이 추가로 장애인으로 편입되며, 이들은 장애수당, 공공시설 요금할인, 고용알선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응의차량만 선별 응급단속

직업훈련 경찰청은 그동안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했던 음주운전단속이 응의차량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음주운전 응의차량에 △정지차하면서 정지선을 초과 △날카로운 각도에서 차선을 열고 운전 △음향 등을 크게 들고 운전 △시그널로 운전 △차선 급변경 차량 △지나치게 서행하거나 과속하는 차량 등이 다.

주부·고령자 취업적응 훈련

주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에 희망하는 주부 및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단기간 기초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최종은 산모 돌보이, 가사보조원, 환자돌보이, 경비원, 아가돌보이 등이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경인지역본부 (02)3271-9133

취업상담 무료로 해줍니다

상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무료로 취업에 관한 진로상담을 해주는 진로정보센터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빌딩 11층에 개설했다. 개인·집단상담은 물론 전화(080-500-7588) PC통신(하이텔 유니텔 나무누리 넷츠고의 go careerinfo), 팩스(02-516-2593)로도 상담할 수 있다.

21일부터 허남 환경박람회

환경박람회 금세기 마지막 지구촌 환경축제인 '99 국제환경박람회'가 경기 허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21일부터 한달간 펼쳐진다. 환경박람회는 국내 2백여 환경업체를 포함,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세계 11개국 3백10여업체가 참여해 각종 첨단 환경기술을 선보인다.

낮잠 자고나면 일 능률적

건강 미국에서 최근 사원들에게 낮잠을 권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고 출현서 일하는 것보다 낮잠을 한숨 자고 나서 일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는 판단 때문. 외신에 따르면 공간사장이 여의치 않은 회사는 텐트까지 쳐줄 정도. 한 경영컨설팅회사는 공식적으로 낮잠을 권하고 있고, 어떤 건축설계회사는 경영진이 캠프 텐트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고.

재외동포법 개정요구

시민단체 “평등권위배·민족공동체 파괴”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하고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안이 의결된 '재외동포법'이 악법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다.

재외동포법은 출입국과 경제활동 등에 혜택을 받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직계후손'으로 한정, 정부수립 전 해외로 나간 동포는 모두 제외됐다. 따라서 일제시대 만주와 연해주로 간 독립투사 후손 등 중국과 옛 소련 동포 250만명과 정용으로 물려가 귀화한 재일동포와 후손은 재외동포로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 및 재외동포들은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에 위배되고 민족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별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외동포는 민족의 존립과 영속을 위한 우리민족의 힘이 나 마친가치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에 항의하러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대표 한막스씨는 “러시아 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아무 이유의 제기도 하지 않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30만 교민이 왜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같은 동포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어려운 재외동포를 차별없이 돕는다는 법적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꽃재비로 불리는 탈북 식량난민 어린이들.

“탈북 식량난민 30만명”

좋은 벗들, 기자회견서 밝혀 5개월간 중국 동북3성 조사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8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5개월간 중국 동북3성 2,479개 마을에 거주하는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내 북한식량난민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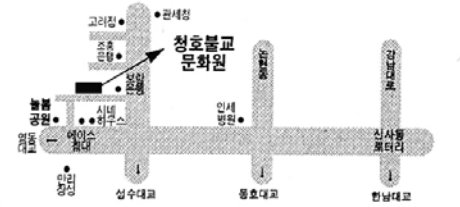
좋은벗들은 또 식량난민중 75.5%가 여성으로 결혼형태의 거주는 51.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중국 농촌총각들과 결혼해 살아거나 생존을 위해 소개결혼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아이를 낳을 경우 교역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고 있다고 전했다.

육조단경 강의

- 개강일: 1999. 9. 6(월) 오전 10시 30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30 ~ 12:00
- 강사: 중앙승가대 승찬 우 교수
- 수강료: 월 20,000원
- 주차료: 청호주차장 주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2
전화: 02)517-3052, 515-9604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 1. 전철 3호선 압구정역 하차후
- 일반버스 74, 235번
- 좌석버스 774, 235번 타고
- 도산공원앞 하차(2정류장)
- 2. 전철 3호선 신사역 하차후
- 일반버스 83, 567번
- 좌석버스 567-1번 타고
- 늘봄공원앞 하차(2정류장)

레이키 (REIKI靈氣)능력 전수합니다

레이키와 氣가 같은것이나 다른것이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대답합니다. 레이키와 氣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에너지>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에너지의 진동수가 다릅니다. 레이키는 높은 진동수를 가진 고급생명 에너지입니다.

레이키는 우리가 <관무량수경>의 일상관(日想觀)을 행할 때 서산으로 누웠던 기운이 가는 불타는 지면 불을 바라보면 인생의 무상감과 함께 몽롱하게 솟아올라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무한한 동정심과 자비심을 느낄 때의 그 생명 사랑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뿌리깊은 고뇌와 중한 병을 제거하고 행복하고 환희에 찬 생활을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생명에너지의 꾸준한 작용이 필요합니다. 또 레이키법과 기공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대답합니다. 기공은 오랫동안 힘들게 수련을 해야 능력을 얻게 되지만 레이키법은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어드민트라는 절차만 받으면 바로 능력을 얻게 되는 법이라는 데서 기공과는 다른것입니다.

한편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목적으로만 하는 기공을 소(小)기공이라 한다면 레이키법은 사회구제와 인류구제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라는 데서 대(大)기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나 질병치료를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의 회복, 지구환경의 개선, 인류제도의 예방에도 쓰일 수가 있어 대기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3단계까지 전수를 받은 레이키마스터는 누구나 이런 보살도를 실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문의: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구한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7가 89 피어선빌딩
전화: 02)720-5682 / 725-2311
지도자 박희준(레이키마스터 / 티쳐, 번역전술가)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 피라미트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²

- ①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①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①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①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 황토주석시공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성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0335-336-6563
FAX: 0335-338-8923
H.P: 011-9680-5055

仙道 “금선양생법으로 평생건강을”

道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이룬다.



仙道라함은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으로서 아무리 학문의깊이가 깊어도 실수련이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는 음기와 양기가 있는데 수련을 잘못하면 오히려 음기가 강해져 감각이 예민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 부작용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데 이를 막고 양기를 증장시키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

훈훈하고 따뜻한 양기의 소주천만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그심성을 온화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서 진중자를 이루어 금단을 맺는데 까지 나아갈수

▶수련문의: 금선학회 02) 512-7057/7233

세계금선학회 회장 최병주